*영어어문교육 16*권 **3**호 **2010**년 가을

초 · 중등 영어교사를 위한 맞춤형 심화 연수 모형 개발 연구*

이 문 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노 신***
(호서대학교)
조 민 철****
(충남외국어연수원)

Lee, Moon-Bok, Lee, Noh-Shin & Cho, Min-Chul.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intensive in-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 models for elementary/secondary school teachers of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3), 269-289.

The present study reports on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intensive in-service English teachers training programs (IIETTP) reflecting on the demands of elementary/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For the purpose of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033 English teachers at elementary/secondary schools across the country. The results showed by and larg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y school level, albeit some slight differences were revealed such as in training times, training methods, the percentages of 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 and other things. Since the two IIETTP models are presented as basic formats, they can be modified and applied according to the contexts of schools and the demands of trainees.

[customized intensive in-service English teachers training/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맞춤형 심화연수/초중등영어교사]

I. 서론

영어 공교육의 질은 영어교사의 질에 좌우되며 그 요체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있다. 즉 영어교사의 영어구사능력과 영어수업능력은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이후, 교과부)는 지난 2006년부터 현직 영어교사 재교육 강화에 관한 혁신 추진 방향을

* 이 연구는 2009년 충남교육청의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되었음.
** 제1저자 *** 제2저자 **** 제3저자

제시하면서, 2010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 할 수 있도록 하여 2012년까지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 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07년부터 매년 1,000여명의 영어교사에게 5-6개월 집중 심화연수를 실시하여 그들이 영어 구사력과 영어 수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심화연수를 제공해 오고 있다. 교과부는 2007년 8곳의 연수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하여 2009년 1월까지 총 22개 연수기관에서 연간 인원 1,500명 수준으로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확대하여 시행해 왔다. 연수의 유형은 출퇴근형이 주를 이루며, 소수의 합숙형과 사이버형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심화연수 확대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수기관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 소수 연구들(예: 김우형, 2007; 민찬규, 2006) 외에 심화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격적으로 심화연수 프로그램을 평가한 체계적인 연구라면 2007년부터 합숙형 심화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2개 연수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장경숙 외 4인(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심화연수 유형 중 합숙형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2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제한적인 연구로 기관별 연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현재까지 수행된 바가 없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2008년에 수립된 영어교사 심화연수 개선 방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심화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연수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 지역, 학교급, 교사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심화연수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 과제로서 수행되었으며, 여기서는 초·중등교사를 위한 맞춤형 심화연수 기본 모형을 논의하고 제시하는데 한정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어교사 연수 패러다임의 전환

일반적으로 학교 교실이 교사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면 교사 연수 교실은 교사가 학습자(teacher trainee)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연수 상황에서 교사는 교수 요원(teacher trainer/educator) 또는 학습자의 역할(student-teacher)을 수행하며, 연수에 참여하는 학습자로서 교사는 언어를 학습하는 학생의 역할과 함께 교수 기술에 대하여 배우는 교사의 역할을 동시에 경험한다(Woodward, 1991). 교사 연수는 이론적 관점과 연수 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에 따라 교사 훈련, 교사 개발, 교사 교육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Richards & Farrell, 2005; Roberts, 1998; Tsui, 2003, Wallace, 1991), 이는 교사교육의 방향이 수동적인 지식 전달에서 수업 전문성 발달로의 연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연수에 대한 세 가지 이론적 관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훈련(teacher training)의 관점이다. 이는 교사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은 행동주의 심리학에 근거한 모형 중심 학습관에 따라 교육 전문가의 요구에 의해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이 결정된다.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과 지식의 습득과 교수 기술 배양에 초점을 두며, 주로 예비 교사를 양성하거나 신규 교사의 재교육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교사 개발(teacher development)의 관점이다. 인본주의와 경험주의 관점에서 교사의 자율성과 직접적인 경험 학습을 중시한다. 이 관점에서 교사 연수는 능동적 주체(self-agency)로서 교사 자신이 정한 목표에 근거하여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지 외부 전문가의 요구에 의해 지시된 프로그램 수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사 자신의 요구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며, 그 수행 결과에 대한 자기 성찰(reflection)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초점을 둔다. 셋째, 교사 교육(teacher education)의 관점이다.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직접적인 교사의 경험을 통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에 초점을 둔다. 교사 훈련과 교사 개발이 '교사'에 초점을 둔 반면에, 교사 교육은 교육의 핵심 요소인 교사, 학생, 학교의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실행 연구를 통한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중요시한다(Elliott, 1991). 또한 교사 교육에서는 일반화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식과 기능보다는 개별 교실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의 교사의 성찰적 사고와 분석, 동료 교사와의 협동 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2. 영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모형

외국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 계발을 위한 교사 연수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인 연수 모형으로 Freeman(1989), Wallace(1991)와 Shulman(1987)의 모형이 있다. Freeman의 연수 모형은 교사 교육을 지식전달이라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바탕을 둔 모형이며, Wallace의 모형은 교사 교육에서 교사의 비판적 성찰을 핵심으로 한 성찰적 연수 모형이고, Shulman의 연수 모형은 교사의 교수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이 핵심을 이룬다.

각 연수 모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reeman은 그림 1과 같이 외국어 연수 모형을 제시하여 교사 연수를 교수 지식, 교수 기술, 태도 및 인식 네 가지로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지식은 교과, 학생, 교수 상황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 교수기술은 교수법, 활동, 상호작용, 자료 및 도구 등 교수 활동 전반을 포함한다. 지식과 교수기법은 가지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교수의 지식 기반이 형성된다. 세 번째 주요 구성 요소로 태도가 포함되는데, 이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 자신, 교수 활동 및 학습자에 대한 자세로 정의 된다. 태도는 지식과 교수 기술의 활용을 제고 시키며 개별 교사의 성취

도 이에 달려있다. 네 번째 구성요소는 인식으로 이는 최상위 구성 요소로서 지식, 기술, 태도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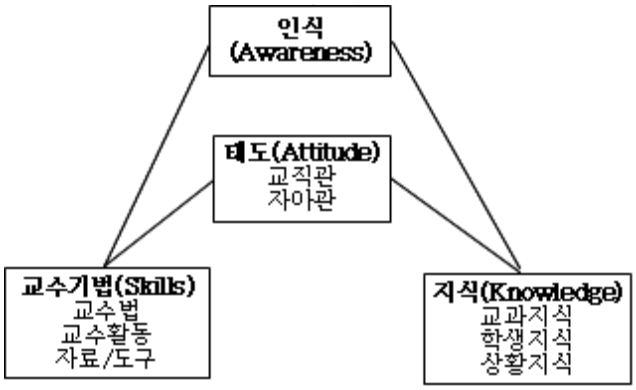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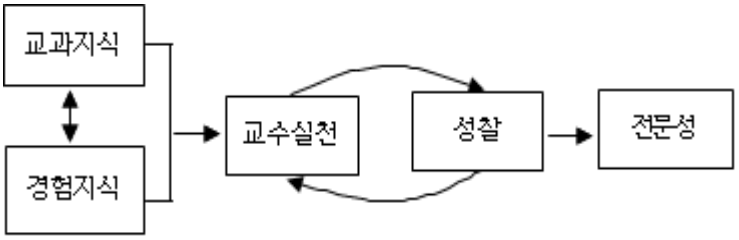


그림 2는 Wallace가 제시한 외국어 교사 연수 모형인 성찰적 모형(reflective model)으로 개별 교사의 비판적 성찰을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교사가 교직에 입문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적 지식과 학습자로서 배운 지식을 모두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성찰적 모형에서는 교과지식과 경험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교수활동을 수업관찰과 분석을 통해 변화시키는 과정에 바로 전문성 신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Wallace, 1991). 수업 변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비판적 시각에서 자신의 수업이나 다른 이의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연수생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강의를 듣기만 하는 수동적 연수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동적 연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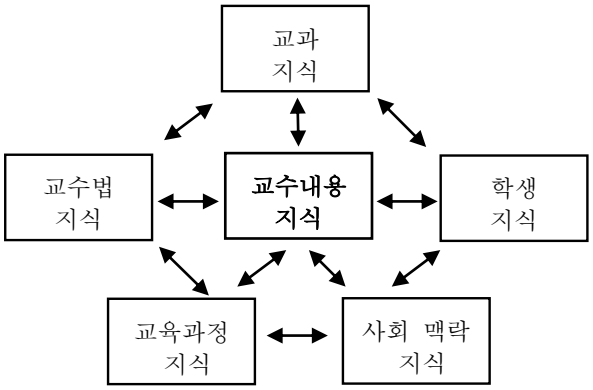
그림 2
Wallace 의 성찰적 연수 모형



Shulman(1987)은 영어 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과 지식과 배경 지식 측면에서 교수 내용 지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교사의 교과 지식에 대한 전문성은

교과 전문가의 지식과 구별되며,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구체적인 교과 내용을 맥락에 맞추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제시하는 교수 내용 지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좋은 교사는 교과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킨다. 교사는 구체적인 교과 내용 맥락에 맞추어 교수 지식을 변형함으로써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수 내용 지식을 개발하게 된다. Shulman(1987)에 근거하여 교사의 전문 지식은 교과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일반 교수 지식, 상황 지식(학습자와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지식, 교육 상황에 대한 지식, 교육 목적과 가치)의 네 영역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장경숙, 연준흠, 김우형, 정규태, Hayes, 2008), 이 이론적 틀은 영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림 3
내용교수 지식 연수 모형



세 가지 연수 모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각 모형별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교과 전문가의 지식과 구별된다. 즉 영어에 대한 언어학적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교사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 그들의 모국어인 영어 사용 능숙도와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EFL 학생에 대한 이해나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낮다. 이효신(2010)은 많은 국내 영어교사들이 한국상황에 대한 이해가 낮은 원어민 강사의 경우 연수진행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한국의 교실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좋은 영어교사는 교수내용 지식의 기초가 되는 교수법, 교과내용, 학생, 교육과정, 사회 관련된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Shulman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업 전문성은 구체적인 교과내용을 맥락에 맞추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형하여 제시하는 실천 지식이기 때문이다. 즉, 교사의 교과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무리 넓고 깊다 하더라도 학생에게 전달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영어교사의 수업전문성 발달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영어교과에 대한 내용 교수 지식의 특징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III. 맞춤형 심화연수에 관한 초·중등 영어교사 설문조사

1. 응답자 특성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설문은 전국에서 총 1,033명의 초·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초등교사는 영어 전담교사나 담임 교사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비록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훨씬 더 많이 설문에 참여하였지만, 전국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영어교사가 포함되었으므로 응답자 집단을 우리나라 초·중등 영어교사를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간주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표 1

전체 설문 참여교사 구성

구 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자	260	25.2
	여자	773	74.8
연령	20 대	162	15.7
	30 대	376	36.4
	40 대	363	35.1
	50 대 이상	132	12.8
학교	초등학교	419	40.6
	중학교	310	30.0
	인문계 고교	214	20.7
	전문계 고교	90	8.7
지역	대도시	326	31.6
	중소도시	304	29.4
	농산어촌	403	39.0

응답자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초등교사 419명(40.6%)과 중등 교사 614명(59.4%)이 참여하였으며, 여교사 773명(74.8%), 남교사 260명(25.2%)으로 여 교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시 326명(31.6%), 중소도시 304명(29.4%), 농산어촌 403명(39.0%)이 참여하였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교사 538명(52.1%), 40대 363명(35.1%), 50대 이상 132명(12.8%)이었으며, 경력별로는

10년 미만 462명(44.7%), 11-20년 281명(37.2%), 20년 이상 290명(28.1%)을 차지하였다.

2. 전체 설문조사 결과

1) 국내·외 영어 연수 경험

초등교사의 국내 영어 연수의 경우 가장 많은 43.0%(180명)가 120시간 기본 연수를 마쳤고, 24.3%(102명)는 1-3개월, 7.4%(31명)는 6개월 이상, 5.5%(23명)는 3-6개월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19.8%(83명)는 국내 영어 연수 경험이 없었다. 중등교사의 경우는 35.0%의 교사가 1-3개월, 19.5%가 120 시간, 17.5%가 6개월 이상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12.4%의 교사들은 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대다수 초·중등교사들이 기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영어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등교사들이 초등교사에 비해 보다 긴 기간의 연수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경향과 최근 정부에서 영어교사들의 영어수업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영어 심화연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초·중등 영어교사의 국내외 연수 경험

설문 문항	기간 구분	초등(%)	중등(%)
국내 영어연수 기간	120 시간	180(43.0)	120(19.5)
	1-3 개월	102(24.3)	215(35.0)
	3-6 개월	23(5.5)	93(15.1)
	6 개월 이상	31(7.4)	108(17.6)
	없음	83(19.8)	76(12.4)
국외 영어연수 기간	6 개월	40(9.5)	217(35.3)
	6 개월-1 년	5(1.2)	50(8.1)
	1-2 년	6(1.4)	21(3.4)
	2 년 이상	4(1.0)	11(1.8)
	없음	364(86.9)	315(51.3)

국외 영어 연수의 경우 초·중등교사 간 눈에 띄는 차이는 우선 중등교사의 51.3%가 해외 영어연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에 초등교사는 절대 다수인 86.9%가 해외 영어연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즉 거의 반수의 중등교사들이 6개월 이상의 국외 영어연수 경험이 있었던 데 반해, 극소수의 초등교사만이 해외 영어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등교사의 35.3%(217명), 초등교사의 9.5%(40명)가 6개월 정도 국외 영어연수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개월 이상의 국외 영어연수 경험자는 초·중등 교사를 불문하고 극히 적었는데, 이는 향후 초·중등 영어교사의 실질적

인 영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영어교사들에게 국외 영어연수 기회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그와 비슷한 영어 환경을 갖춘 심화연수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수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는 국내 연수에 참여한 목적을 서술하게 하였는데, 초등교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5개의 항목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영어 교수법 향상(106명, 31.5%), 영어실력 향상(69명, 20.5%), 의무적 참여(65명, 19.3%), 회화 능력 향상(22명, 6.5%), 자기 계발(16명, 4.8%) 순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사의 경우, 영어실력 향상(148명, 27.5%), 의무적 참여(81명, 15.1%), 영어 교수법 향상(71명, 13.2%), 자기 계발(58명, 10.8%), 회화 능력 향상(41명, 7.6%)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사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된 연수 목적으로 서술된 5개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었다. 그러나 순위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교사들은 영어 연수에서 영어 의사 소통 능력 향상 보다 영어 수업 기술 향상을 더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중등 영어교사들은 영어 수업 기술보다는 영어구사능력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 연수 신청 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 초등교사의 37%(155명)는 본인의 과중한 학교 업무라고 응답하였고, 학교 현장과 연수 프로그램간의 연계성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한 교사도 27%(113명)나 되었다. 12.2%(51명)의 교사는 수업 결손으로 인해 학교에서 교사의 연수 참여를 꺼리며, 7.6%(32명)의 교사는 대체 강사 채용의 어려움 등을 연수 참여 기피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중등 영어교사들도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32.6%(200명)의 교사는 본인의 과중한 학교 업무, 28.8%(177명)는 학교 측이 수업 결손으로 인해 교사의 연수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며, 21.2%(130명)는 학교 현장과 연수 프로그램간의 연계성 부족하고, 7.7%(47명)는 대체 강사 채용의 어려움 등을 연수 신청의 주요 장애물로 언급하였다. 여기서 초·중등 영어교사들의 연수 참여를 저해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업 부담과 과중한 업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연수 프로그램과 현장 적용과의 괴리로 인해 교사들이 연수 참여를 꺼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많은 영어교사들을 영어연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수업 환경을 개선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사이버 연수를 포함한 혼합형 연수 등 다양한 연수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수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맞춤형 심화연수에 관한 요구 조사

맞춤형 심화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초·중등 영어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더 나아가 심화연수가 정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적당한 주기는 2-3년이 적당하다는 초등교사가 66.9%, 중등교사는 59%로 나타나 초등교사들이 더 높았다. 또한 4-5년 주기의 경우

초등교사는 32%, 중등교사는 40.2%로 중등교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초·중등교사 모두 보다 짧은 연수 주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심화연수 적정 기간으로는 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초등65.2%, 중등 64%)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고, 표준 시간(600시간)만 이수하면 연수 개월 수는 조정 가능하다는 의견(초등15.3%, 중등 14.7%)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수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교사(초등 18.9%, 중등 20.8%)도 상당수 있었다. 6개월 연수 기간 중 국외 연수 기간은 어느 정도를 희망하는지 묻는 설문에는 3개월(초등 36%, 중등 40.1%), 2개월(초등 21%, 중등 19.9%), 1개월(초등35.3%, 중등 34.4%)로 각각 응답하였다. 이 결과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해외 연수 기간을 늘려 줄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반면에 상당수의 교사들은 현행 1개월 해외 연수를 선호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교사들이 선호하는 국외 연수 국가는 미국(초등 44.4%, 중등 50.8%), 캐나다(초등 20%, 중등 15.5%), 영국(초등 12.6%, 중등 19.5%), 호주/뉴질랜드(초등 15%, 중등 9%) 등 대부분의 교사들이 모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선호하였으며, 특히 북미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였다.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연수 받기를 희망하는 교사는 소수에 불과했는데, 이런 특정 국가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연수 국가 다변화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학교급별 설문조사 결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들의 영어 심화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무엇이며, 또 두 집단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결과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수 시기

맞춤형연수 실시 시기에 대해서 초등교사들의 49.4%가 방학중 연수를 선호했고, 37%의 교사들은 학기-방학 연결 연수를, 13.6%의 교사들은 학기중 연수를 각각 선호했다. 중등교사들은 이와 달리 42.3%의 교사들이 학기-방학 연결 연수라고 응답하였으며, 32.9%가 학기중 연수를 선호하였으며, 24.8%의 교사들은 방학중 연수를 선호하였다.

2) 희망하는 맞춤형 심화연수 방식

희망하는 심화연수 방식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알아보았는데, 반응 빈도수가 높은 항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 가지 심화연수 방식은 사이버형, 방학중 합숙형, 방과후 출퇴근형+사이버형

(재택)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출퇴근형, 방과후 출퇴근형+방학중 합숙형, 학기중 합숙형 등 순서로 선호하였다. 반면 중등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 가지 심화연수 방식은 출퇴근형, 학기중 합숙형, 사이버형(재택)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학중 합숙형, 방과후 출퇴근형+사이버형(재택), 방과후 출퇴근형+방학중 합숙형 등 순으로 선호하였다. 흥미로운 결과는 초등교사들은 재택 사이버 연수 방식을 가장 선호한 반면, 중등교사들이 가장 선호한 연수 방식은 출퇴근형이었으며, 또한 재택 사이버 연수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교사들이 선호하는 연수 방식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연수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도 있지만 직접 얼굴을 대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연수에 비해서, 사이버 연수의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연수와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희망하는 심화연수 교육과정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희망하는 심화연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설문에서 학교급에 상관 없이 초·중등교사의 68%가 영어구사능력+영어수업능력 복합과정[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어구사능력 중심과정과 영어수업능력 중심과정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영어구사능력 중심과정을 선호하는 교사는 초등14.6%, 중등 20.4%였으며 또 영어수업능력 중심과정은 초등교사의13.4%, 중등교사의 8.6%가 선호하였으며, 영어 교사연수 전문가 양성과정을 희망하는 교사는 초등, 중등 모두 극소수에 그쳤다.

표 3

심화연수 교육과정 구성

심화연수 교육과정	초등교사	중등교사
영어구사능력 중심과정	61(14.6%)	125(20.4%)
영어수업능력 중심과정	56(13.4%)	53(8.6%)
영어구사능력+영어수업능력 복합과정	286(68.0%)	420(68.0%)
영어교사연수 전문가 양성과정	15(3.6)	16(2.0%)

희망하는 경우 영어구사능력 대 영어수업능력의 적정 비율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에서와 같이 초·중등교사 모두 가장 선호하는 구사능력 대 수업능력 비율을 50% 대 50%로 응답하였으며, 이어 구사능력 70% 대 수업능력 30%를 선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사능력 30% 대 수업능력 70%를 선호하는 교사는 소수(초등 14%, 중등 8.3%)에 그쳤다.

[1] 영어구사능력과 영어수업능력을 상황에 맞게 통합한 교육과정 구성

표 4

영어구사능력 대 영어수업능력의 적정 비율

구성 비율	초등교사	중등교사
영어구사능력 70% : 수업능력 30%	104(36.4%)	128(30.5%)
영어구사능력 50% : 수업능력 50%	140(49%)	248(59%)
영어구사능력 30% : 수업능력 70%	40(14%)	35(8.3%)

이와 같은 결과는 초·중등교사 모두 의사소통능력과 교수능력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업능력 보다는 영어구사능력에 향상에 더 높은 관심이 있으며 또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또한 영어회화 능력은 우리나라 영어교사들이 가장 부족한'아킬레스건'임을 보여주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구사능력 중심과정에서 희망하는 교수요목을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초등교사는 말하기, 듣기, Free talking, 교실영어, 문화 이해, 읽기, 쓰기, 토의 및 토론 등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중등교사는 말하기, 듣기, Free talking, 쓰기, 토의 및 토론, 문화 이해, 교실영어, 읽기 등 순으로 선호하였다. 수업능력 중심과정 희망 교수 요목의 경우 초등교사들은 말하기 교수, 듣기 교수, 발음 교수, 읽기 교수, 쓰기 교수,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활용, 노래 활용, 어휘 교수 멀티미디어 활용 등 순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중등교사들은 말하기 교수, 듣기 교수, 쓰기 교수, 멀티미디어 활용, 읽기 교수,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활용, 영화(드라마) 활용, 발음 교수, 문법 교수, 발표 수업, 어휘 교수 등 순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심화연수를 통해 가장 향상시키고 싶은 언어기능을 묻는 설문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사 모두 듣기-말하기(초등 56.8%, 중등 37.9%) 또는 말하기(초등 31%, 중등 24.1%)와 같은 영어구사 능력 신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심화연수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 결과를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은 미시적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초·중등교사 모두 기본적인 의사소통(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 BICS) 능력 신장에 높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의 영어 공교육 정책의 초점이 지나친 학문 중심 영어(Cognitive/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ALP) 교육보다는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 영어교육, 즉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실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영어교육으로의 전환과 이를 위해 모든 영어 교사들이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심화연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맞춤형 심화연수 수업 운영 방식

심화연수 참여 시 영어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는 학교급에 관계 없이 절대 다수의 교사들(초등 90.2%, 중등 71.8%)이 찬성하였고, 수업 형태는 강의중심, 발표 중심보다는 실습중심, 토론중심, 또는 혼합 형태를 선호하였다. 혼합 형태를 선택한 교사들의 경우 가장 원하는 수업 형태는 초·중등교사 모두 강의+실습, 강의+토론+발표+실습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혼합형태로 나타났다. 강사 구성의 경우,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중등교사 모두 원어민/내국인 혼합 강사 구성을 가장 선호했으며, 또 상당수의 교사들이 원어민/내국인 협력 수업을 희망하였다.

이런 결과는 학교급에 상관 없이 대다수의 교사들이 원어민과 내국인의 적절한 역할 분담, 즉 원어민 강사는 영어회화, 내국인 강사는 교수법이나 교수 이론에 대한 강의 분담을 희망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하지만 다소 차이점도 발견되었는데, 중등교사의 32.2%가 원어민 강사 전담 강의를 선호한데 반해 초등교사의 11.7%만이 원어민 강사 전담 강의를 원하였다. 또한, 수업 언어로서 영어 사용 비율의 경우, 100% 영어 사용을 선호하는 초등교사들이 20.3%인데 반해, 중등교사들은 42.5%가 선호하여 큰 격차를 나타냈으며, 마찬가지로 영어 80%-한국어 20%의 선호도(초등 59.7%, 중등 44.6%)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강사 구성과 영어 사용 비율에 대한 결과를 볼 때, 한편으로 교사들이 대체로 원어민 강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어민 일변도의 강사 구성에서 벗어나야 하며,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정한 한국어 사용이 허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앞으로 심화연수 강사를 구성하고 수업 언어로서 영어 사용 비율을 결정할 때 유념 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표 5

학교급별 심화연수 수업 운영 방식

설문 문항	구분	초등교사(%)	중등교사(%)
강사 구성	원어민	49(11.7%)	198(32.2%)
	내국인	7(1.7%)	3(0.5%)
	원어민-내국인	246(58.7%)	264(43%)
	원어민-내국인 팀티칭	117(27.9%)	147(23.9%)
영어 사용 비율	영어 100% 사용	85(20.3%)	261(42.5%)
	영어 80%-한국어 20%	250(59.7%)	274(44.6%)
	영어 50%-한국어 50%	84(20%)	76(12.4%)
영어로 수업진행	한다	157(37.5%)	350(57%)
	안 한다	262(62.5%)	264(43%)

마지막으로, 현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묻는 설문에서는 중등

영어교사의 57%, 초등 영어교사의 37.5%가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응답하여 중등교사들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영어 사용 정도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사 간에 차이가 났는데, 초등교사의 49%는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45.2%는 교실영어만 영어로 하고 내용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중등교사들은 36%가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57.4%가 교실영어만 영어로 하고 내용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의외의 결과로 초등교사가 중등교사에 비해 영어수업에서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 영어수업에서는 중등 영어수업에서와는 달리 교실영어 수준의 쉽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영어를 가르치지만 중등 영어수업에서는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는 교수 내용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업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것은 수업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비교적 인지적 부담이 낮은 듣기, 말하기 기능은 최대한 영어로 수업을 하되, 읽기, 쓰기와 같이 높은 인지적 사고를 요구하는 언어 기능은 상황에 따라 영어와 한국어를 적절하게 혼용하는 것도 수업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IV. 맞춤형 심화연수 모형

앞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수 유형과 연수 과정을 중심으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맞춤형 심화연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수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연수 대상자들의 준비도, 상황, 요구를 파악하는 일이므로,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등교사들이 선호한 복합과정 학기중 출퇴근형을 기본형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이 유형을 연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수 모형은 교사들이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대신 연수기관에 출석하여 심화연수에 참여하는 연수 유형이다.

영어구사능력과 영어교수능력은 영어교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핵심 자질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환경에 있는 국가의 영어교사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능력이 유창한 영어구사능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연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교사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연수의 성격 및 목표, 기간, 교육과정 편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수의 성격:** 동일한 비중으로 영어교사의 영어구사능력과 수업능력 향상을 목표에 두는 과정으로, 영어 숙달도가 '중' 정도이며 교수 기술면에서의 향상도 상당히 필요한 교직경력 5~10년 정도의 교사에게 적당하다.

◦**연수의 목표:** 영어구사능력과 수업능력을 향상시켜 수업언어로서 영어를 사용하여 영어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함양한다.
◦연수 기간 및 형태: 700 시간(국외 연수 시간 미포함) 기본 (국내 연수 5 개월 + 국외 연수 1 개월), 1 일 7 시간(월 ~ 금), 주당 35 시간 집중연수이다.

◦**교육과정 편성 방향**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수업언어로서 영어 사용 수업 기술을 균형 있게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원어민 중심의 강사 구성을 하되, 영어 수업기술이 뛰어난 현장교사도 적극 활용한다.
-수준별로 소인수 학급 편성을 하여 원어민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극대화 한다.
-강의, 실습, 토론, 발표 등 다양한 유형의 수업 형태를 지향한다.
-공개수업 참관 후 현지 인근 학교 수업실습을 통하여 연수자가 직접 참여하는 연수가 되도록 한다.
-영어구사능력과 수업 기술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한다.
-국내 연수를 통하여 연마한 능력을 확장하고 실제 적용해 볼 기회를 갖기 위해 일상 생활에서 영어가 통용되는 ESL 국가 또는 영어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EFL 국가에서 1 개월간의 국외 연수를 갖는다.

표 6
복합과정 학기중 출퇴근형 초등 연수 모형

영 역		교 과 목	교 과 내 용(요약)	시수	강사
의사소통 (350 시간)	핵심	듣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듣기 능력 향상	60	NS
		말하기	과제 중심 활동을 통한 말하기 연습 및 발표	80	NS
		읽기	읽기전략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글 읽기	40	NS
		쓰기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를 통한 작문능력 향상	30	NS
	보조	Free talking	영어 유창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제 토론	40	NS
		교실영어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교실영어 학습	40	NS
		문화이해	영어권 문화에 대한 정보 습득 및 토의	20	NS
		토론	소그룹 주제 중심 자유 찬반 토론	20	NS
		발음	영어 발음 연습 및 오류 교정	20	NS
		프리젠테이션	공식석상에서의 연설 및 프리젠테이션 기법	20	NS
		프로젝트 워크샵	연수생들 조별 워크샵	30	NS
교수방법	언어기능	듣기*	듣기 지도 방법 강의 및 조별 실습	50	(N)NS
		말하기*	말하기 지도 방법 강의 및 조별 실습	60	(N)NS

(260 시간)	및 요소별 지도법	읽기/스토리 활용*	읽기 지도 방법 및 스토리의 활용 방안	40	(N)NS
		쓰기*	효과적인 쓰기 지도 방법	30	(N)NS
		발음/파닉스*	발음 및 파닉스 지도의 실제	20	NS
		노래/챈트	챈트 제작 기법 및 노래/챈트 활용법	10	NS
		어휘*	효과적인 어휘지도 방법	15	(N)NS
		문화*	언어기능과 문화의 통합적 지도방법	15	(N)NS
	수업 참관	모범수업 참관	모범수업을 직접 또는 녹화 자료를 통해 참관하고 수업분석	20	(N)NS
수업 실습 (30 시간)	실습	마이크로티칭	수업 단계 및 상황별 모의수업을 실시, 녹화 후 분석	10	(N)NS
		발표 수업	각자의 수업을 계획하고 초등학교 현장실습 후 분석 및 평가	10	NNS
		학습지도안*	영문 학습지도안 작성법 및 사용 표현 학습	10	NNS
교수학습 자료개발 (20 시간)	ICT	멀티미디어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및 활용기법 지도	10	NNS
	자료제작	교수자료제작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학습 자료 제작의 실제	10	NNS
교수이론		기본 교수법*	기본 교수법 이론 및 현장적용 방안 소개	10	NNS
언어평가		언어학습 평가*	언어의 4 기능 평가 및 수행평가 방법, 평가문항 제작 기법	10	NNS
평가 및 행사		평가/행사	연수생 사전, 사후 평가 및 현장 체험학습	10	NNS
오리엔테이션		연수안내	개강식, 수료식, 해외연수 오리엔테이션	10	
합 계				700	

*사이버 연수 병행 가능

표 7

복합과정 학기중 출퇴근형 중등 연수 모형

영 역		교 과 목	교 과 내 용(요약)	시수	강사
의사 소통 (350 시간)	핵심	듣기	듣기 능력 신장을 위한 듣기 전략 활동	60	NS
		말하기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주제별 말하기 활동	80	NS
		읽기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한 다독 중심 읽기 활동	50	NS
		쓰기	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에세이 쓰기 활동	50	NS
	보조	문화	외국 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중심 클럽 활동	20	NS
		토론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토론 활동	30	NS
		Free talking	유창성 신장을 위한 주제별 그룹 토론	30	NS
		교실영어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활동	30	NS
교수	언어	듣기*	듣기 전략 학습을 통한 듣기 교수 기법	40	(N)NS

방법 (220 시간)	기능 및 요소별 지도법		지도		
		말하기*	말하기 전략 학습을 통한 말하기 교수 기법 지도	60	(N)NS
		읽기*	읽기 전략 학습을 통한 읽기 교수 기법 지도	20	(N)NS
		쓰기	과정 중심의 다양한 쓰기를 통한 쓰기 교수기법 지도	30	(N)NS
		발음*	다양한 현지 음성 녹음 자료를 활용한 발음 교수 기법 지도	10	(N)NS
		문법*	의사소통 중심 과업 지도를 통한 문법 교수기법 지도	15	(N)NS
		어휘*	연어・맥락 중심 어휘력 지도를 통한 어휘 교수기법 지도	20	(N)NS
		수준별수업지도	수준별 영어 수업 지도 방법	15	(N)NS
		원어민협력수업	효과적인 팀티칭 지도 기법 지도	10	(N)NS
수업 실습 (40시간)	실습	학습지도안*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계획서 작성 기법 지도	10	(N)NS
		마이크로티칭	수업모형 제시와 개발을 통한 수업방법 개선 지도	15	(N)NS
		발표 수업	수업시연을 통한 수업 분석 및 수업 평가 방법 지도	15	(N)NS
자료 개발 (40 시간)	ICT	멀티미디어*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및 활용기법 지도	15	(N)NS
	자료 제작	드라마*	드라마 제작 및 활용을 통한 교수 기법 지도	10	(N)NS
		교수자료 제작	효과적인 교수를 위한 학습 자료 제작의 실제	15	(N)NS
교수 이론 및 언어 평가 (30 시간)		기본 교수이론*	기본 교수법 이론 및 현장 적용 방안 연구	15	(N)NS
		언어학습 평가	언어의 4 기능 평가 및 수행평가 방법, 평가 문항 제작 기법	15	(N)NS
평가 및 행사		평가/행사	연수생 사전, 사후 평가 및 현장체험학습, 특강	10	NNS
행정 기타		연수 행정	개강식, 수료식, 오리엔테이션	10	
합계				700	

*사이버 연수 병행 가능

두 연수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은 복합과정의 성격에 맞게 영어구사능력과 수업능력을 비슷한 비중으로 강조하여 두 가지 능력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총 700시간의 연수 시수 가운데 절반 정도인 350시간을 의사소통 능력 영역에 할당하였다. 의사 소통 능력 가운데서도 영어 수업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구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원어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듣기와 말하기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과제 참여와 주제별 토론, 문화와 관련된 토의 등을 통해 통제/유도된 말하기와 자유 토론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실 영어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넣었고, 영어 발음 연습과 함께 본인 발음의 오류를 진단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영어 수업 능력도 크게 교수 방법, 수업 실습, 학습 자료 개발로 나뉘고 그 밖에 기본 교수이론과 언어평가가 추가되었다. Shulman(1987)은 교사는 주어진 맥락에서 교과 내용을 학생의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실천적 내용 교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실천지식은 수업 전문성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영어 구사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한편 초·중등 연수 모형의 간 차이점은 교과목 구성 및 교과목 시간 배당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할 수 있다. 우선, 교과목 구성의 차이를 언급하면, 초등 모형은 교수 방법 영역에서 초등에 맞게 스토리 활용, 파닉스, 노래/챈트, 수업참관을 넣었고, 중등 모형에서는 초등 모형에 없는 문법, 수준별 수업지도 및 원어민 협력수업을 포함시켰다. 또 다른 차이는 초등 모형에서 프로젝트 워크샵으로 이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초등교사에게 부족한 영어접촉 기회를 보충하는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그 밖에 중등 모형에서는 교수 방법 영역 시간을 줄이는 대신 수업실습, 교수자료 개발, 교수법 이론 및 평가 시간을 초등보다 대폭 늘렸는데, 이는 각 학교급별 특성과 설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두 프로그램은 복합과정의 성격상 영어 구사력과 수업능력에 비슷한 비중을 두고 교과목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나 이것이 두 요소를 분리해서 다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윤여범 외(2007)가 영어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교과교육학 운영 시 교사의 언어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듯이, 연수에서도 영어 구사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과목과 영어 수업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과목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계영아, 장경숙, 정규태, 2008; 장경숙, 2007)는 지금까지 영어 연수에서 이러한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심화연수에서 두 과정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수업기술과 관련된 교과목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로 강의를 하여 강사와 연수생들이 영어로 의사 소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어 구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수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강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심화연수의 경우는 특히 원어민 강사의 선발 기준을 강화하여 TESOL 자격증 및 EFL 상황에서의 강사 경험을 갖춘 원어민을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원어민과 한국인의 협동 강의,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 강사 활용 등 다양한 조합을 고려하여 전체 영어 강의의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연수생들의 희망 사항이기도 하고, 심화연수의 취지에도 맞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초·중등학교 교사의 영어 심화연수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로 복합과정 학기중 출퇴근형 연수 모형을 기본형으로 제시하였다. 초·중등교사들의 연수 선호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중등교사의 응답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근무 환경이 다르다 보니 선호하는 연수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를 나타냈는데, 초등교사의 경우 사이버형과 방과중 합숙형, 방과후 출퇴근형+사이버 혼합형을 선호하는 데 비해 중등교사의 경우는 출퇴근형, 학기중 합숙형, 사이버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복합과정 출퇴근형을 기본형으로 제시한 것은 연수 유형별, 연수 과정별로 연수 대상자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부분 수정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학기중 출퇴근형, 합숙형 등 단일 유형의 연수가 주를 이루고 혼합형 연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교사의 형편과 편의에 맞춘 보다 다양한 조합의 연수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어교사 연수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 로드맵에는 단계적 맞춤형 연수 교육과정 구성 및 운용, 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연수 유형 개발, 국내외 연수의 효과적 연계, 성과관리, 연수 위탁기관의 체계적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영어 심화연수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연수의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연수생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교수자 중심의 지식 전달 방식을 탈피하여 연수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조사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과 목적 달성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Nunan, 1988; Richards, 2001). 본 연구의 요구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교사들이 강의 중심 수업에서 탈피하여 강의, 토론, 실습, 발표 등의 활동이 혼합된 참여 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연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수생들이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수동적으로 경청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교수나 학습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Wallace, 1991). 연수생들은 우수한 강사의 수업을 통해 학습자로서 언어 기능별 활동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교수 기법, 학습 자료, 수업 진행 등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경험은 다양한 기법을 실제 적용해 보는 실습이나 모의수업을 통해 내재화할 수 있다.

둘째, 연수 이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수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연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교사를 선별하고 또 연수

이수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수가 필요한 교사의 선별 과정과 연수 이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다. 사실 그간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영어 관련 연수를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하여 왔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사들의 영어능력을 진단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 연수 이수자의 이력을 DB화하여 직무, 심화, 국외 연수 간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수자 DB 정보가 영어교사 TEE 인증제와 연계하여 활용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수한 연수 이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이다. 많은 영어교사들은 최근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학교에서 영어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 실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위한 교사연수, 방과 후 프로그램 실시 등 정규 수업 외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이렇듯 변화하는 영어교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많은 시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불만이다. 또한 연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동기 부여 부족으로 교사 간 연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우수 영어교사에게 승진이나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우수 영어교사에게 학습연구년 같은 혜택 부여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혜택 수여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들이 받은 혜택을 영어교육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 교육청별로 우수교사 인력풀을 만들어 그들이 수업 시간 중 일정 시간을 소속 학교에서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은 연수 강사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한 가지 방법이다.

끝으로, 심화연수의 효과성에 대한 현장 연구와 추후 지도이다. 연수 효과란 연수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현장에 돌아갔을 때 교실 수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조사인데, 장경숙(2008)은 단기 혹은 장기 연수 후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나 면담을 통해 교사가 갖는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성취감, 기대 등에 대한 변화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나 교사가 받은 연수로 인해 수업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임병민과 김재영(2008)도 연수 후 연수 효과를 측정하여 차기 연수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이를 반영하는 연수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Hayes(2007)는 연수 후 일어나는 수업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므로 연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사의 수업 참관과 교사 중심의 교실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주장한다. 즉,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현장에 돌아가서 주어진 상황에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수를 이수한 많은 교사들은 여전히 연수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 간의 괴리를 지적한다. 이는 연수 교육과정과 교실현장 간의 괴리로 인해 궁극적으로

교사연수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연수와 현장 간의 분리는 교사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연수 프로그램과 연수와 현장 간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연수 후(follow-up)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장경숙 외, 2008). 따라서 연수 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 개선과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계영아, 장경숙, 정규태. (2008). 영어교사 언어능력 신장을 위한 사이버형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사례 연구.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1*(3), 69-92.

김우형. (2007). 합숙형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38*, 193-220.

민찬규. (2006).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 효과에 대한 연구. *영어교과교육*, *5*(1), 27-45.

윤여범, 임희정, 김혜리, 민덕기, 홍경선, 오마리아, 박미애. (2007). 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표준 심화과정 개발 연구. *초등영어교육*, *13*(1), 95-125.

이효신. (2010). 교내-교외 통합형 영어교사 연수 사례 연구: 한국 캠브리지 ICELT 를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6*(1), 250-281.

임병민, 김재영. (2008). 혼합식 학습 전략을 활용한 영어교사 연수 활성화 방안. *영어어문교육*, *14*(1), 145-167.

장경숙. (2007). 영어교사 심화연수 프로그램 평가. *외국어 교육*, *14*(3), 257-282.

장경숙, 연준흠, 김우형, 정규태, Hayes, D. (2008). *영어교사 심화연수 프로그램 평가 연구: 합숙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lliott, J. (1991). Action research for school change. Philadelpia: Open University Press.

Freeman, D. (1989). Teacher training,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A model of teaching and related strategies for language teacher education. *TESOL Quarterly*, *23*(1), 27-45.

Hayes, D. (2007). In-service teacher education and training: International perspectives. IETTP Seminar. Incheon, Korea. January 18, 2007.

Nunan, D. (1988). *The learner-centred curricul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chards, J. (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ichards, J., & Farrell, T. (2005).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ulman, L. S. (1987). Knowledge-base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vard Educational Review*, *57*(1), 1-22.

Tsui, A. (2003). *Understanding expertise in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lace, M. (1991). *Training foreign language teachers: A reflective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odward, T. (1991). *Models and metaphors in language teacher training: Loop input and other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이문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어교육개선연구실
100-784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Tel: 02-3704-3699
Email: himoon@kice.re.kr

이노신
호서대학교
336-795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165
Tel: 041-560-8183
Email: josh21@hoseo.edu

조민철
충남외국어교육원
충남 공주시 금흥동 98-5
Tel: 041-858-7157
Email: ncgreen38@yahoo.com

Received in July 15, 2010
Reviewed in August 20,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in September 15, 2010